

車등록사업소서 짝통 번호판 보조대 판매

남구 대행업체 싼 가격에 구입, 정품가로 팔아 차익 챙겨

다른 구청에서도 유통 의혹…남구청 “경위 파악하겠다”

광주의 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짝통’ 차량번호판 보조대가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사업소 내 번호판 교부·유통업체 직원은 저가의 짝통 보조대를 정품 가격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차량번호판 보조대 소비자들에 따르면, 광주 남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번호판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의 직원 A씨는 가짜차·현대차 등 국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 상표가 새겨진 짝통 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지난 7일 확인한 결과, A씨가 번호판 교부 업무를 하는 사무실 한 쪽에는 짝통 번호판 보조대가 가득했다. 새 차에 정식 번호판을 달기 위해 남구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찾은 민원인들도 A씨가 번호판과 함께 판매하는 짝통 번호판 보조대를 진품으로 알고 아무렇지 않게 구입했다. A씨는 기자가 ‘이거 짝통 아니냐’라고 묻자 홀로그램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정품 번호판 보조대를 내놓기도 했다.

A씨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일하면서 소비자들이 정품과 짝통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 짝통 번호판 보조대를 싼 가격에 사들여 정품가격인 1만 5000원(2개 1세트)에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주시와 번호판 교부업무 협약을 한 뒤 남구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에서 자동차 번호판 교부를 하는 대행업체의 직원이다. 이 업체는 남구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구청에서도 자동차 번호판 교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가 없는 짝통 차량 번호판 보조대.

부업 등을 하고 있다.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 자동차 번호판 교부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짝통 번호판 보조대가 어디에서 제작돼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순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제작된 뒤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품 번호판 보조대는 포장지나 제품에 고유의 홀로그램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남구 자동차등록사업소 번호판 교부

업체 관계자는 “번호판 교부 외 번호판 보조대 등 기타 용품 판매는 직원 개인이 하는 일로, 회사에서는 짝통 번호판 보조대가 판매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광주시청에서 직접 했고, 구청은 공간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교부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복덕방 변호사’ 1심서 무죄

중개사와 밥그릇 싸움 예고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논란끝에 범인이 변호사로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어서 앞으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7월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시내버스, 오토바이 추돌 사망사고

다. 이날 사고는 문모(47)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박모(44)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발생, 박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시내버스와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광주동부경찰서와 동부소방서 직원들이 지난 7일 밤 9시35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

다. 이날 사고는 문모(47)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박모(44)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발생, 박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시내버스와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4개 초등학교 주변 위험환경 한눈에

광주 동구 아동안전지도 제작 ‘눈길’

교사·학생·주민 등 참여

‘이 길은 가로등이 없어 위험해요.’ ‘이 곳에는 아동안전 지킴이집이 있어요.’

광주시 동구가 아동대상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안전지도(사진)를 제작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중앙초등학교, 학운초등학교, 남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주변의 위험환경 등을 담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 배포했다.

아동안전지도는 학교주변의 위험요소, 사각지대, CCTV 설치지역, 아동안전 지킴이집, 비상벨 위치, 경찰 순찰지역 등을 초등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등으로 제작했다.

동구는 학교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해바라기아동센터, 동구자원봉사센터, 지역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아동안전 지도를 만들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현



장을 돌며 느낀 불편 등을 지도에 담기도 했다.

이 아동안전지도는 홍보용 공책으로 제작돼 4개 학교 전교생들에게 배포했고,

각 초등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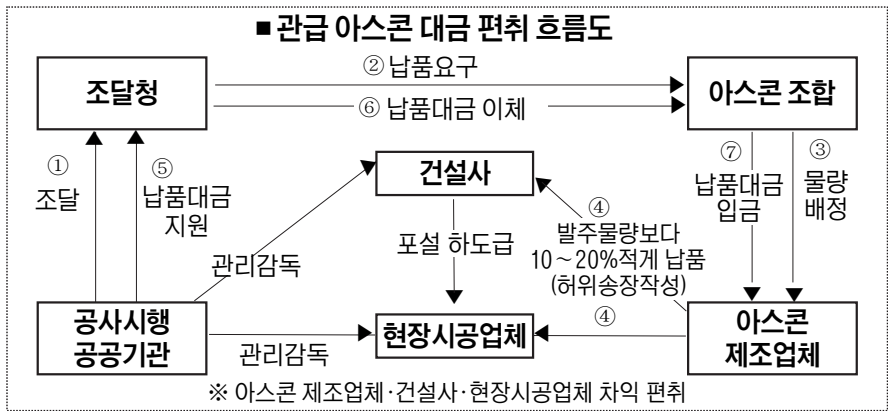
동구 관계자는 “아동 안전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아동 성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순회 인형극 공연’에서 안전지도 전시회를 진행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누더기 도로’ 이유 있었네

아스콘제조사·시공사 짜고 5cm 아닌 3.5cm 포장해 편취



장성경찰, 공무원 등 20명 입건

도심 곳곳의 ‘누더기 도로’에는 이유가 있었다. 아스콘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가 서로 짜고 아스콘 포장을 얇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실시공 됐지만,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경찰은 관급 도로공사의 아스팔트 콘트리트(이하 아스콘) 납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아스콘제조업체 대표 A(50)씨 등 20명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아스콘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전남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B(63)씨와 준공조서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C(3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광주·전남아스콘조합’에서 광주점2단계 조성공사, 나주혁신도시 공사 등 광주·전남지역 19곳의 관급 도로공사 납품을 배정받았다. 이후 시공업체와 짜고 배정된 아스콘 중 90%만 현장에 납품하고

나머지 4만t을 빼돌려 3억5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하위로 송장과 납품영수증을 현장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해 배정된 아스콘을 모두 포설한 것처럼 속인 뒤 수령한 아스콘 대금을 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가 각각 6대 4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층결사 등 증거를 직원의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에 숨기고 일부는 불태우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도로는 설계상 아스콘이 5cm 이상 두께로 포설해야 하는데 측정결과 두께가 3.5c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스콘 납품비리가 도로 부실공사로 이어졌고 규정보다 얇은 아스콘도로는 누더기 도로의 원인이 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스콘 납품비리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부정수급 한 아스콘 납품 대금을 환수조치 하도록 유관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알선 수재’ 김용구 전 자문관, 추가 기소 혐의 전면 부인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구(63)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이 검찰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추가 기소된 김씨의 혐의 3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남구 첨단도시산단 조성 사업 참여를 알선·청탁해주겠다고 용역계약 체결 명목으로 S건설사로부터 3억2560만원을, 송정역 환승복합센터 개발사업 알선 대가

로 또 다른 S건설사로부터 1억375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와 J문화재단 명의를 빌려 광주시 공무원들을 속이고 용역계약을 체결해 9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알선 명목이 아닌 정당한 컨설팅과 함께 받은 돈이라는 설명이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김씨에 실제 계약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식료품 품진 60대 막한 사정에…경찰이 합의 주선·일자리 수소문

○~경찰이 마트에서 삼창, 참치 캔, 건과류 등 식료품을 품진 60대 여성 의 막한 사정을 듣고 처벌이 최소화되도록 합의를 주선하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는 등 돕는다.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60)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광주 시 서구 금호동의 한 마트에 들어가 설탕과 라면을 구입하면서 미리 가방 속에 넣

여 돈 3만8000원여치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저자간 혐의.

○경찰은 불법한 김씨가 전국의 떠돌며 공사일 하는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지 못한다며 취업마저 여의치 않아 소득이 사실상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식료품만 훔친 점 등을 고려해 피해 마트를 찾아가 처벌이 최소화되도록 합의를 주선하는 한편 김씨가 정상적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일자리도 수소문 중. /김형호기자 khh@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6타경 12920	1	북구 문흥동 974-13 193㎡ 층93.96㎡ 부속건물 번소4.9㎡ 제1외기차 층 19.4㎡	대	258,012,000 258,012,000	일괄매각, 제1외기차 건물포함
[연립주택, 다세대/빌라]					
2016타경 13343	1	서구 문천로 162번길43, 102동 4층 401호 5.28㎡	다세대	150,000,000	
2016타경 63188	1	서구 쌍촌동 527 대로파크빌 에이동 3층 05호 32.3㎡	다세대	48,000,000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6635	1	장성군 서상면 용흥리 662 486㎡	대	8,748,000	대나무다수식재
	2	동소 746 2258㎡	전	17,160,8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6타경 8112	1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315-1 265㎡	전	158,403,000	일괄매각, 제1외기차 건물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397-57 519㎡ [물건번호1:물건청결전경면부분은원상회복계획서요할수있음]	전	158,403,000	
2016타경 9993	1	나주시 석현동 313-1 2448㎡	답	163,699,000	일괄매각, 농지취득 자격증명요, 2016타경12807(중복)
	2	동소 313-2 2301㎡ [비닐하우스매각제외]	답	163,699,000	
2016타경 12234	1	담양군 월산면 통암리 589 562㎡ [17/19평대]	대	13,073,840	매각대상아내재산 소재지분전부
2016타경 12678	1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337-5 4900㎡	답	50,470,000	외간물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2016타경 60974	2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541-1 116㎡	답	4,170,000	일괄매각, 원형도 동소 539-1 162㎡
	3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57-1 2291㎡	전	16,495,200	분묘소재, 농지취 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6타경 60974	4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341 793㎡	전	4,440,800 4,440,800	분묘소재, 농지취 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63089	1	서구 광천동 57-7 132㎡ [오장동지분전부40 분의18]	대	199,722,600 199,722,600	일괄매각, 목책1건 물모두열람
2016타경 63416	1	죽성군 옥사동면 평리 산63 7603㎡	임야	19,007,500 19,007,500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6타경 6437	1	장성군 장성읍 원천리 1482-15 1212㎡ 동소 1482-19 186㎡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79 69.12㎡ 34.56㎡ 61.20㎡ 옥식점156.06㎡ 일용품점193.82㎡ 음식점61.20㎡ 일용품소매점49.80㎡ 부 속건물 번소3.60㎡ 제1외기차외식점들78.6㎡	대 답 세차장, 사무실, 미용 원동	726,636,460 726,636,460	일괄매각, 제1외기차 건물포함 [제1외기차제외], 목책1,2 각1건1번1학주식 본전부699분의686
[기타]					
2016타경 7867	1	곡성군 석곡면 운수리 444-2 533㎡ 동소 444-3 1253㎡ 동소 444 4132㎡ 동소 446 1307㎡ 동소 446-2 521㎡	대 목장용지 과수원 전 전	666,360,000 666,360,000	일괄매각, 조경수 및조경석포함, 농지 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8624	1	담양군 옥성면 원천리 산5-1 7017㎡ 동소 193-1 14734㎡ 제1외기차들 2789㎡ 동소 193-1 제1기동 1층1363.25㎡ 2층128.13㎡ 3㎡ 제1외기차기동들 동소 193-1 1층 748.25㎡ 동소 산3-19 264㎡ 동소 산3-20 132㎡ 동소 산3-21 76㎡	임야 광장,사무실 광장 임야 임야	1,881,615,240 1,881,615,240	일괄매각, 제1외기차 건물포함, 공장지 단법제7조제1항제 구포함[5층은소재 불명], 제1외기차 기구매각제외, 목책 1-4광장및기제 구구목책제외
2016타경 9993	2	나주시 석현동 313-3 1824㎡ 동소 313-3 1층202.5㎡ 2층174.57㎡ 제1 외기차들 190.7㎡ 동소 313-3 1층 1층111.95㎡ 2층110.4㎡ 국성군 옥곡면 함갈리 647 3603㎡ 제1외기 PET LINE 설비	대 관린시설, 단독주택 관린시설 관장용지	554,259,600 554,259,600	일괄매각, 제1외기차 건물포함, 2016타 경12807(중복)
2016타경 11958	1	국성군 옥곡면 월파로 267-43 1층903㎡ 2 층192㎡	공장,사무실	512,970,000 512,970,000	일괄매각, 기계기 구1-3살균기Convey or소재불명, 1-6 프레스서는인접지 [647-2번지]소재

●국고부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기대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때에는 매수신청보통공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상입한다. 불법행위 등 사유로 인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수급이 불발될 수 있음.
-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무산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매수보통공의 미납으로 인하여 매수되는 경우 그 공판지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매수신청고인이 없는 경우 취지취득자격증명 취득유예가 매수신청고인으로 본다.
- 매각기일 : 2016. 11. 24. [목] 10:00
- 매각대상지 : 2016. 12. 1. [목] 14:00
- 매각대상지 : 광주지방법원 제1부민정합
- 매각방법
 - 입찰방법에 비하여 기일당첨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명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발행의 자급부담 또는 현금 등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회계자를 제정한 공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면 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계약서와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봉투의 투입이 종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기대수신고인에게로 정하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괄당첨자를 선정해 추가개찰을 실시한다.
 - 최고기대수신고인과 자문취득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은 매수신청보통공에 응찰하는 즉시 반환한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기일까지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정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 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장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장권이나 가압류의 압수등기를 위하여는 등록세와 지장권해제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증(상환금 반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지 관공서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금납입후 1주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면 관공서에서 등록을 완료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 관공서에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매각결정조서의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당첨에 인조는 매각결정 기일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나, 신변보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있는 사후에 인정행위를 행하면 책임질 반드시 입찰당첨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시미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물건의 매각기일 전에 매수신청이 허가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물건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의,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용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회변환 계산을 의 공고나 발행에 비하여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통공을 반환합니다.
- 매각결정 공고에 의하는 대법원 총재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법정정보서비스
 - 대법원 총재기에서 공고내용외에 열람 가능한 정보는 행정소송 제청후도록, 중앙지정지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안전을 위하여 따로 제청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매각결정이나 신청이나 공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준행행위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공서에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발행에 나오셔서 제청지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 계수